



관세국경을 지켰은 50년
국민안전을 위한 100년



보도자료

OPEN www.customs.go.kr
대변인실 042-481-7616~7
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힘내라 대한민국
배포일자	2020. 8. 18(화)	담당부서	부산본부세관 부두통관2과
담당과장	김영경 051-620-6260	담당자	박기현 051-620-6267

컨테이너 검색기를 활용한 부두직통관 수입검사 시행

- 부산본부세관, “과학장비 기반 수입검사로 국경관리 강화” -

□ 부산본부세관은 8월 18일부터 부두직통관* 컨테이너 수입검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인적(人的) 검사 중심에서 컨테이너 검색기 기반의 과학장비 검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.

* 부두직통관 화물은 보세구역 경유 없이 컨테이너에 내장된 상태로 부두 내에서 통관되어 물류 비용 및 통관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

□ 세관은 마약 및 국민안전 위해물품, 위조상품 등을 적발하기 위해 수입화물을 선별해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.

○ 특히, 부두직통관 검사는 부두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화물이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수입검사를 진행하므로, 컨테이너 일부 발취검사를 악용한 범죄행위(알박기, 커텐치기 등) 등 우범 화물의 사각지대 우려가 대두되어 왔다.

○ 컨테이너 전량 적출검사*의 경우 내장품을 적출한 후 재적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주의 검사 비용과 통관 소요시간 부담으로 수입검사에 어려움이 제기되어 왔다.

* 통상 건당 100만원 이상의 적출입 비용과 2일 이상의 통관시간 소요

□ 금번 조치로 X-ray 투시를 통해 컨테이너 내부의 화물을 사전 판독함으로써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뿐만 아니라, 수입신고 이외 물품, 세율차이가 많은 물품의 허위신고 예방 등 수입신고의 정확성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.

□ 아울러, X-ray 검색 이후 위험도가 낮은 화물은 컨테이너 전량적출검사를 일부발취검사로 변경하여 화주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또한, 중소 수입업체의 컨테이너 검색기 검사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제 중소기업이 부담한 검사 비용의 90% 수준은 세관에서 지원*된다.

* 검사비용 지원요건, 신청방법 등 구체적 내용은 보도자료("관세청, 중소기업 수출입화물 검사 비용 지원 개시", '20.6.17일) 참조

□ 금번 과학장비 기반 수입검사는 신선대 부두(운영사: 부산항 터미널)에서 약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부산항 전역 및 전국세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.

○ 향후, 수입검사 사례들을 분석하고 X-ray 검색만으로 수입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패턴을 발굴하여 부두직통관 컨테이너 수입검사의 효율성도 제고할 계획이다.

□ 부산본부세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물동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,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.